

신앙신조들의 열정과 사랑을 이어가는 교구공동체의 해

성녀 이간난 아가타 (1814-1846)

Yeo Kannaan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 96

(시편 144,15)

서울의 외교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가타는 18세 때 혼인하였다가 3년 만에 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왔다. 이 때 외할머니의 권유로 교리를 배우고 유방제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1846년 병오박해가 일어나자 현석문 회장이 마련한 집에 숨어 있다가 7월 11일에 현석문, 김임이, 정철염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9월 20일에 6명의 교우와 함께 33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사진 제공 _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피어라, 신앙의 꽃)」 성인화 · 역사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 제 1 독 시** 신명 6,2-6
- 회 답 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제 2 독 시** 히브 7,23-28
- 복 음 환 호 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마르 12,28ㄱ-34
- 영 성 제 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이웃 안에 살아계신 주님



조병환
요한 세례자 신부
신봉동 본당

오래전 시골 본당에서 일할 때 지적장애와 신체장애가 함께 있던 40대 후반의 혼자 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술 담배를 좋아해서 찌든 냄새도 나고 목소리가 특이하게 커서 대부분 곁에 가는 것을 꺼리고 무시하고 함께 하질 않아 거의 외톨이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입온 형제가 그 장애인 형제를 친구처럼 대하고 늘 함께 동반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당 옆자리에 앉고 청소나 주차 봉사도 함께 하고 레지오도 함께 하면서 단짝처럼 붙어서 열심히 돌봐주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니 홀로 지내던 그 형제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형제를 무시하지 않고 잘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세례 기간? 주일미사 참여? 활동 횟수? 하느님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 그대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족들이 우리 이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평소에 그렇게 미워하고 속 썩고 고통당하다가도 죽기 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에 형제지간에 부

모와 자식 간에, 부부 지간에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마지막에 그 말을 해야 합니까? 왜 살면서 가장 필요한 말을 그때 가서야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평생을 천국으로 살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엔 해야지, 다음엔 말씀드려야지 미루다가 결국 이별하고 나서 평생 한을 갖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은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키우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과 이웃 형제들과 오해를 풀고 서로 돕고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하느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첫째 계명은 이것이다.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사랑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율타리를 곁에 두고 사는 이웃 주민들, 그리고 한 신앙 안에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자매들을 아끼고 섬기는 데에서부터 실현됩니다. 이웃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그리스도의 초상', 램브란트 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0).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사진 출처 _ 네이버

패랭이

- 순수한 사랑*

신성근 아고보 신부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패랭이는 더위를 피하는 갖의 일종으로, 옛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썼던 밀짚모자이다. 이러한 패랭이와 비슷한 모양의 꽃이 있다. 바로 패랭이꽃이다. 꽃자루까지 잘라서 뒤집어 보면 영락없이 패랭이를 닮았다고 한다.

패랭이꽃은 그리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다. 소박하다. 한데 오밀조밀 모여있으니 이쁘다. 홀로 떨어져 피면 눈길을 끌지 못할 텐데, 한 곳에 붙어있으니 아름답다. 이 패랭이꽃이 초여름 따가운 햇살과 함께 사랑으로 다가왔다.

집 안뜰에는 자그마한 꽃밭이 있었다. 바로 어머니의 정원이다. 그 정원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꽃들이 철 따라 피었다. 그 꽃들은 어머니의 손길에 따라 옷을 갈아입었다. 어머니 곁에 쫓그리고 앉아 패랭이꽃을 바라보았다.

그 정원에서는 꽃을 가꾸는 법이 아니라, 사랑의 소중함을 배웠다. 어머니는 '꽃은 만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도 갑자기 만지면 놀라듯이, 꽃도 놀란다.'라고 더불어 알려 주셨다. 자연을 대하는 마음이다.

시간이 흐른 지금, 어머니와 함께 쫓그리고 패랭이를 바라보던 기억은 아스라하다. 패랭이꽃은 나에게 단순한 꽃이 아니다. 어머니와 같이 바라보던 사랑의 꽃이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입맞춤하며 피어난 꽃이다.

패랭이꽃은 어릴 적 기억이 묻어난 꽃이며, 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김하게 한 꽃이다. 패랭이꽃이 여름 더위를 견뎌내며 꽃을 피워가듯이, 사랑도 그러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은 가없다. 어머니가 그림다. 아니 아버님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코린 13,7)

* 패랭이 꽃말은 자료마다 달라, 여기서는 이 꽃말을 택하였다.



청주주보는 10월 20일(주일)부터 11월 3일(주일)까지
교리교사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불행은 견딜 만큼 짧게, 행복은 진득하니 오래

이정민 로사리아 / 모충동 본당

“불행은 견딜 만큼 짧게, 행복은 진득하니 오래”는 나의 좌우명이다. 불행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다가 오고, 행복은 오랫동안 내 곁에 머무른다는 뜻이다.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 성당의 문턱을 넘어 다니던 나는 누구랄 것 없이 친했고, 친구들과 성당 여기저기를 누비는 귀여운 악동이었다. 어린 시절 성당은 나에게 큰 놀이터였고, 주일학교는 학교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였다.

수능을 끝내고 얼마 되지 않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인생에서 겪어 본 가장 큰 상실감으로 울다 지쳐 잠들다가, 손님이 왔다는 이야기에 나가보니 교리교사 선생님들이 퐁퐁 눈이 부은 나를 가만히 쳐다보시다가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다.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들에 당황스럽다가도 이내 따뜻한 품에 조용히 안정감을 느꼈다.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바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취직을 하며 자연스럽게 성당에서 멀어져갔다. 삭막한 서울 생활에 지쳐가던 중, 친한 수녀님의 권유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생겼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창세 28,15). 왜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주 읽게 되고 생각이 났다. ‘아직 하느님의 뜻이 와닿지는 않지만, 내게 주신 구절이 언제든 쓰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교리교사를 하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 오랜만에 주일학교 미사에 갔다. 선생님들은 기억 속 모습보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따뜻한 온기는 그대로였다. 들어와서 기다리라는 친절에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한 선생님이 건넨 ‘교리교사 할래?’라는 말 이후, 나는 단독방에 초대되었고 교사실 책상 한 칸에 자리 잡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이것저것 배워가며 경험해 보는 게 새로웠다. 그렇게 1년을 보낸 후, 선생님들이 그만두고 기존 선생님 한 분, 이제 1년 차인 나와 신입교사 한 명이 남게 되었다. 그 해는 정말이지 내내 눈물바다였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아이들은 물론 나 자신도 돌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남들이 나에게 보이는 기대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 마음 하나로 꾸역꾸역 버티다 보니 어학연수를 떠난 동생이 교사회로 돌아왔고,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동생도 주일학교 행사를 도와주고 싶다며 연락이 왔다. 어느새 아이 같고 귀여웠던 고등부 친구들도 눈을 반짝이며 교안을 쓰고 있다.

정말 불행은 짧았고 행복은 길었다. 고작 4개월짜리 불행과 3년짜리 행복을 비교한 내가 부끄러웠다. 사실 4개월의 시간 동안 행복은 진득하게 있었다. 날 믿고 일을 맡겨주신 선생님, 뭐든 배우겠다고 노력하는 신입교사, 어학연수를 떠나 멀리 체코에서도 응원해 주었던 동생 교사, 부족한 나여도 멋지다고 쫄래 쫄래 쫓아다니는 아이들 모두가 나의 행복이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이제는 이해된다. 나와 어디든 함께 계셔주셨고, 결국 주일학교로 다시 데려와 주셨다. 나에게 약속하신 행복은 아이들, 동료 교사들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이 행복이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하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일상일지도 모르지만,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한 이 천사 같은 아이들과 든든한 동료 교리교사들이 나의 행복이자 늘 함께 계시는 나의 하느님이다.



2024년도 사제전체회의

청주교구는 10월 22일(화) 내덕동 주교좌 성당에서 사제전체회의를 실시하였다. 교구장 김종강 시몬 주교의 주례로 사제단 미사가 봉헌되었고, 이어서 각 부처 보고, 예산지침서 설명, 사제단 친목회장 인사 및 사목기금 운영회의 안내가 있었다. WYD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대해 다루었고, 대학생 사목(충북대)과 중앙경찰학교 사목에 관한 내용도 안내되었다. 선교사목국에서 사목교서 구현을 위한 피정(최양업 신부님의 영성)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사제전체회의는 주교님의 말씀 및 강복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교구 사제 약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진 촬영 - 장광동 바오로/교구 가톨릭사진가회 회장〉

교구장 동정

■ 사제평의회

일시 _ 11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_ 교구청

■ 청소년사목위원회

일시 _ 11월 5일(화) 오후 2시
장소 _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 교구장 사목방문

일시 _ 11월 10일(주일) 오전 11시
장소 _ 덕산 성당

교구청

부모와 함께 하는 영유아교육 '천사학교'

일시 _ 11.2-23, 매주 토.10:30-12: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문의 _ 210-1737 가정사목국

전산 업무 교육

1차 _ 11.6.수.14:00 교구청
2차 _ 11.7.목.14:00 교현동 성당
문의 _ 210-1760 전산홍보실

하반기 사회복지신입직원 교육

일시 _ 11.7.목.10:00
장소 _ 교구청

제35차 비다누에바

일시 _ 11.8.금-10.주일
장소 _ 교구 연수원

카나 혼인강좌

일시 _ 11.10.주일.09:00-18:00
장소 _ 교구청
회비 _ 5만원
마감 _ 11.6.수까지
접수 _ 210-1737 가정사목국
※수강자 본인 사전접수 필수

미사·피정

교정사목위원회 및 봉사자 미사

일시 _ 11.7.목.14:00
장소 _ 교정사목센터(충청대로 213)
문의 _ 212-3215 교정사목센터

ME 쇠신주말

일시 _ 11.9.토-10.주일
장소 _ 엠마우스 피정의 집

군중후원회 미사

일시 _ 11.11.월.10:0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청주 생명수호미사

일시 _ 11.18.월.19:30(19:00부터 묵주기도)
장소 _ 사천동 성당
주례 _ 김영선 티모테오 신부
※임신부와 태아축복식 있음

감사와 청원의 10주간 철야작정기도

일시 _ 12.20까지 매주 금.21:00-토.03:00
(11.29.금 제외)
장소 _ 초청 성령회관 ※미사, 성시간 있음
내용 _ 묵주기도, 기도, 강의, 안수, 찬양
문의 _ 010-5482-6744 회장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자연순례 _ 11.21-23, 12.6-8, 12.14-16
연말연시(한라산눈꽃산행) _ 12.29-1.1
한라산눈꽃산행 _ 1.11-13, 1.16-18
운영 _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내용 _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접수 _ 064-796-4182, 02-773-1455

하늘씨앗(참차아) 깨어나기 영성수련

일시 _ 11.22.금.19:00-24.주일.16:00
내용 _ 참다운 자신을 깨닫고 일상에서
힘 있는 나로 살아가기

강사 _ 김영근 바오로 신부(예수회)
문의 _ 010-5564-4287

제주 면형의집 피정

성지순례(추자도포함) _ 11.24-27, 12.1-4
생태순례 _ 12.7-9, 12.13-15, 1.17-19
연말연시(한라산눈꽃산행) _ 12.30-1.2
운영 _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내용 _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접수 _ 02-773-1463, 064-756-6009

교육·모집

수녀연합회 2024년 가을 연수

일시 _ 11.5.화
장소 _ 문경 일원(마원성지, 문경새재길 등)
준비물 _ 개인 소지품, 텀블러

가경자 최양업 신부와 함께 하는 제37차 양업순례단 성지순례 모집

일시 _ 11.9.토.08:30 교구청 출발
순례지 _ 갈매못·삼터·서짓골 성지
해설 _ 차기진 박사
회비 _ 7만원(선착순 80명)
접수 _ 010-2749-9387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김장김치 후원자 모집

내용 _ 가정제조 김장김치 10kg 이상(9-10쪽)
김장김치지원 후원금(5만원)
접수 _ 12.6까지 259-3331 청주노인복지센터

청주가르멜재속회 지원자 모집

대상 _ 세례 3년이상 견진받은 55세 이하
문의 _ 010-4411-3991 회장

가톨릭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클리닉, 피부관리실
피부과 전문의 (사창사거리 다이소 옆 2층)

피부과 전문의 / 의학박사 양태호 루가 | 266-6680~1

휴표 휴침대(청주점)

일상을 바꾸는 아트 퍼니처!
휴표휴침대와 함께~ (전속모델 : 장운정)

김영석 프란치스코 | 273-4733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5(모충동)

증평 현대 장례식장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현영, 신자 특별 우대
증평성요셉공민묘지관리위원장 김영태

김영태 프란치스코 | 010-5465-2964
박태수 요셉 | 010-4350-5713

제주성지순례 · 한국성지167

1/7 나가사키 4일, 1/13 나트랑,달랏 5일
1/21 태국,파타야 5일, 2/6 스페인 · 포르투갈 12일

미카엘 여행사 | 010-8650-9690
정상훈 미카엘 | www.michaeltour.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7-13 스페인 남부 375만원
1/13-24 피정 성모발현지 475만원

가톨릭신문투어 | 02-2281-9070
www.ctour.org

강남호랑이마취통증의학과

경추·요추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어깨·무릎 관절 통증,
특수 신경치료, 프롤로치로, 도수재활치료

박준범 라자로 | 02-2281-7588
장민정 안나 | 서울 금남시장 맞은편

중앙탑 성당 사무장 모집

자격 _ 세례 5년이상 위드,엑셀 가능한 여성신자
문의 _ 070-5150-9697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_ 264-0900 ※송절로 124번길 9

요양보호사(교대) 및 조리사(주간) 모집

문의 _ 269-2609 은혜의 집(노인요양원)

성심노인요양원 밤근무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_ 214-8501 ※18:00-익일 09:00 근무

음성꽃동네 노인요양원 구원의 집 직원 모집

분야 _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문의 _ 879-0225 ※기숙사 사용 가능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_ 11.11.월-19.화,17:00

전공 _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

특수대학원 사회복지학, 카리타스학

특전 _ 직장인, 수도자 등 장학혜택 다수

문의 _ 270-0131 ※방문 및 우편 접수

안내·기타

성직자·수도자 고해성사

일시 _ 11.4.월,14:00-15:00

장소 _ 최양업관 ※주성로 321

주례 _ 함제도 신부(메리놀외방전교회)

가톨릭청소년센터 고해성사

※11월은 없습니다.

황석두루카외방선교회 후원회 모임

일시 _ 11.4.월,10:30

장소 _ 사천동 성당 ※물방울 모임

사회복지기관장 회의

일시 _ 11.5.화,15:00

장소 _ 교구청

11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교구 홈페이지

‘가정기도’ 게시판 열람가능



교구 여성봉사자 소풍

일시 _ 11.4.월,09:30-16:00

장소 _ 담양 죽녹원 일대

문의 _ 010-4087-5455 여성연합회

※07:20 사천동 성당 집결, 미사 후 출발

교구 안젤루스도미니×서울대교구 마니파캣합창단

교류 연주회(마니파캣어린이합창단 창단 30주년기념)

일시 _ 11.22.금,19:3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문의 _ 010-6496-5774 ※무료 공연

대전 밀레마니 문화여성센터 프로그램

분야 _ 이론, 전례초 조각, 성가

캘리그래피(기초/심화,자격증반)

전문영성상담(유재선 신부), 성지순례

문의 _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청주주보 광고란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교구청 전산홍보실(☎21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뒷목문화사 Tel : 273-5000~2, E-mail : dewmok@naver.com 인쇄·출판·광고·성경필사용지 제작·판매

제32기 청주교구 아버지학교

- 일시 _ 11.30.토,08:30-12.1.주일,15:30
- 장소 _ 엠마우스 피정의 집
- 대상 _ 65세 미만 아버지 선착순 30명
- 회비 _ 12만원
- 문의 _ 210-1733 가정사목국

가브리엘 합창단 정기연주회

2024. 11.9. SAT 16:00 PM

천주교 청주교구 내덕동 주교좌 성당

무료공연 | 공연문의 010.8841.5556

주최 천주교청주교구 가브리엘 합창단 주관 천주교청주교구 성음악원

수도회 성소모임

| 수도회명 | 일시 | 장소 | 문의 |
|-------|--------------|------------|---------------|
| 살레시오회 | 11.9.토-10.주일 | 대전 정림동 수도원 | 010-7635-8815 |

벨톤 보청기 총주지사

청각복지카드 소유자 (무료 출장, 상담)
10만원대 구입 가능

원장 주영호 요셉
010-8335-0516 | 857-9494

숙성새우젓 · 각종 발효액젓 · 신안탈수햇소금

[강경늘봄젓갈] 총구역 기금 마련 상담환영/각종 새우젓 명란젓, 낙지젓, 오징어젓, 토하젓, 멍게젓, 친환경 우렁

대표 김형근 루카 신안탈수햇소금 20kg
010-7722-7711 | 택배비 포함 4만 3천원

카톨릭병원 정형외과

“관절 및 척추질환 치료병원”
사직동 사거리 교보생명 맞은 편

김지목 레 오 김지영 라파엘라
274-4401~2

아이솔루션 애플전문AS센터(교우할인)

아이패드/워치/아이폰, 전원(충전)교장, 액정 배터리 메인보드
데이터복구, 택배수리/전국150여개업체 수리위탁전문

김성철 베드로 | **010-9388-8832**
(청주C 인근)

(민진배) 진안과 의원

백내장, 녹내장, 망막, 사시, 안성형, 드림렌즈
육거리와 꽃다리 중간. 한성한의원 건물 1,2층

원장/전문의 민진배 라 파 엘 박계연 라파엘라
222-7582

가톨릭 여행사

1월 7일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1월 17일 이탈리아 일주(히브리 전대사) 12일

대표 최도형 야고보 | **010-5235-3533**